

제58회 정기총회 개최

새 총회장에 장경태목사 선출



장경태 총회장



김명균 부총회장



백승호 부총회장



박성균 서기



임명기 부서기



요시이히데오 회계



2025년 10월 12일(주 일) ~ 14일(화), 재일 대한기독교회 제58회 정기총회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마태복음9: 37 ~ 38)라는 주제로 福岡教会에서 개최되었다.

개회예배 후에 강사 자넷 매킨토시 교수(관서학원대학강사)에 의해 '캐나다 장로교회(PCC) 재일선교100주년'의 기념강연이 있었다.

강연 후, 전체 총대 142명 중 참석 총대 103명을 확인하고 개회가 선언되어, 2박3일의 정기총회 일정에 들어갔다. 먼저 의사 운영위원 인준과 회순 채택이 이뤄진 후, 신임 총대 소개, 중경총회장 및 중경 부총회장 소개, 내빈 소개가 있은 다음, 제57회 정기총회 회의록을 승인했다.

첫날 곧바로 선거에 들어가 총회장에는 장경태 목사(船橋), 목사 부총회장에는 김명균 목사(名古屋)가 선출됐다.

둘째 날은 경건회(사회 : 김신야 목사, 설교 : 조원철 목사) 후 전날 선거에 이어 장로 부총회장 : 백승호 장로(神戸), 서기 : 박성균 목사(和歌山第一), 부서기 : 임명기 목사(福岡), 회계 : 요시이히데오 장로(京都)가 선출됐다. 선거 결과를 받아 중경총회장 나카에요이치 목사의 사회로 <신/구 상임위원 교대식>이 진행되었으며, 의장이 장경태 신임 총회장으로 교체되어 회의가 이어지고 헌의안 심의에 들어갔다.

또한 임원선거와 회의 사이에는 각종 보고, 승인 및 내빈 인사가 있었다. 이번 내빈은 다음과 같다.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 김경수목사, 해외한인장로회 사무총장 : 김광철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부총회장 : 김문훈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행정실장 : 이범희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 정훈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부총회장 : 문

형률장로, 일본기독교단 총회의장 : 雲然俊美목사, 일본그리스도교회 대회의장 : 中家契介목사,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의장 : 吉高叶목사,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실행위원 : 정시온 목사.

셋째 날은 경건회(사회 : 김종권 목사, 설교 : 김무사 목사)를 시작으로 의사 일정에 들어가 각 위원회의 활동계획 보고와 남은 헌의안을 심의하였다.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감사는 아래와 같다.

선교위원장 : 이중재목사(川西), 교육위원장 : 채은숙목사(大垣), 사회위원회 위원장 : 신용섭목사(KCC), 신학교시위원회 위원장 : 박영자 목사(豊中第一復興), 신도위원회 위원장 : 윤종현목사(明石), 현법위원회 위원장 : 나카에요이치목사(広島), 구제기금위원회 : 김승정장로(豊橋), 재정위원장 : 요시이히데오 장로(京都), 평화통일회의준비위원회 위원장 : 이명신목사(大阪), 현법/규칙 등 개정 검토위원회 위원장 : 야나기마치이사오장로(横浜), 캐나다장로교회在日선교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위원장 : 조현규 목사(別府), 감사:신대영 장로(東京希望)

이번 총회에서는 아래의 헌의안을 심의하고 결의하였다.

- (1) 목사 · 장로 시무 연기의 건(부결)
- (2) 겸무목사에 관한 건(부결)
- (3) 현법 규칙 등 개정 검토 위원회가 올린 상정안의 건(가결)
- (4) 총회규칙 제17조 개정의 건(가결)
- (5) 중부지방회 규칙의 건(가결)
- (6) 관동지방회 규칙개정 인준의 건(가결)
- (7) 교역자퇴직후 지원금 규칙 개정의 건(가결)
- (8)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120주년' (2028년)준비위원회 조직의 건(가결)
- (9) 전 총회신학교와 니시아라이교회와의 '공동위원회' 설치의 건(가결)

기타, KCC, RAIK, 서남KCC 이사 및 감사가 승인되어, 마지막에 예산안 심의와 승인이 있은 후 폐회예배로 이어졌다.

폐회예배는 부총회장 김명균 목사의 사회로 드려지고, 부총회장 백승호 장로의 기도, 서기 박성균 목사의 성경봉독, 총회장 장경태 목사의 '전도자의 인생' (사도행전20:22 ~ 24)이라는 제목의 설교와 축도 다음에 제58회정기총회의 폐회가 선언되었다.

(편집자)

제58회 총회 각 위원회 활동계획

※각 위원회 조직은 준비 부족으로 다음에 게재하겠습니다.

●선교위원회

<조직>

· 위원장 : 이중재 (川西)

<활동계획>

- (1) 각 지방회 전도집회 지원
- (2) 선교/전도 세미나 개최
- (3) 재일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선교 방책 연구 및 지원
- (4) 선교협력 교단과 교류 실시



●교육위원회

<조직>

· 위원장 : 채은숙 (大垣)

<활동계획>

- (1) 주일학교 어린이를 위한 연합캠프 실시
- (2) 미자립교회 응원 프로젝트 :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계획하여 실시
- (3) 목회자 영성교육 프로그램 계획 실시



●사회위원회

<조직>

· 위원장 : 신용섭 (KCC)

<활동계획>

- (1) 계속하여 인권문제에 관여하여 활동한다
- (2) 방재와 재해대책 매뉴얼을 만든다
- (3) 교회 안에서 인권교육과 연수 : 성폭력, 폭력 대책



●신학교시위원회

<조직>

· 위원장 : 박영자 (豊中第一復興)

<활동계획>

- (1) 목사, 전도사, 선교사 고시 실시
- (2) 학습/세례문답집 재발간
- (3) 목회자 계속교육 계획 및 커리큘럼 작성



제 58 회 일원 일동



제 58 회 상임위원회 일동

●신도위원회

<조직>

· 위원장 : 윤종현 (明石)

<활동계획>

- (1) 청년지원 : 전국청년협의회의 재건을 위하여 진력하고, 5지방회 청년연합회 재건을 지원한다. 온라인과 대면을 통한 청년세미나를 정기적인 실시를 목표로 한다.
- (2) 신도지원 : 신도들끼리의 모임과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한다. 지방회 레벨, 전국 레벨로 신도 조직화에 힘 쓴다.
- (3) 고령자지원 : 고령의 신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한다.



●헌법위원회

<조직>

· 위원장 : 나카에 요이치 (広島)

<활동계획>

- (1) 임원회, 상임위원회, 지방회에서 위탁받은 안건을 처리한다.
- (2) 헌법/규칙 등 개정 검토위원회에 협력한다.
- (3) 총회 홈페이지 헌법/규칙에 관한 정보를 관리한다.
- (4) 회의 운영규칙 제정을 위하여 초안을 작성한다.



신구 총회장 교대식



일본그리스도교회
의장有賀文彦 목사

일본기독교단
美道 목사

총회의장
俊然 雲然

정시온 목사
CDA 실행위원

기장 부총회장
文衡 투장도

정시온 목사
CCA 실행위원

김문준 목사
총회부총회장

정희목사
通합총회장

● 구제기금 위원회

<조직>

· 위원장 : 김승정 (豊橋)

<활동계획>

- (1) 구제기금의 안정적 지급 및 운용을 추진한다.
- (2) 구제기금 고갈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현금을 요청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재정위원회

<조직>

· 위원장 : 요시이 히데오 (京都)

<활동계획>

- (1) 총회 재정의 안정화 및 건전화
- (2) 과년도 미수금 대응(관동, 중부, 간사이) 및 계획안 작성
- (3) 니시아라이교회에 대한 대남금 상환 실행
- (4) 특별회계의 정리
- (5) 총회 부담금 산출 방법 검증



● 평화통일회의 준비위원회

<조직>

· 위원장 : 이명진 (大阪)

<활동계획>

- (1)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공유한다.
- (2) 총회 평화통일주일에 '공동기도문'을 작성하여 전국교회에 배포
- (3) 해외의 한반도 화해와 평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대



● 헌법 규칙 개정 검토 위원회

<조직>

· 위원장 : 야나기마치 이사오 (横浜)

<활동계획>

- (1) 헌법 전체를 전면 개정을 실시
- (2) 2년후 제59회 정기총회에 헌법/규칙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개정안 작성 및 검토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한다.
- (3) 개별목표로 헌법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원회 논의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회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실시한다.



● 캐나다장로교회 在日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조직>

· 위원장 : 조현규 (別府)

<활동계획>

- (1) 재일 캐나다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자료 등을 수집하여 기념지를 만든다.
- (2) 캐나다 선교사 자료실을 KCC에 설치한다.
- (3) '재일 캐나다 선교사와 KCCJ'를 주제로 캐나다에서 강연회를 개최한다.
- (4) 제59회 정기총회에서 기념식 개최



● 감사

<조직>

· 신대영(長), 이대종, 모리 가츠유키, 이중재, 최일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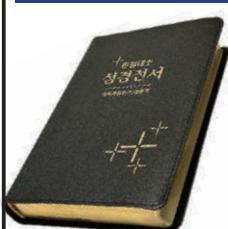


西新井教会 목사 청빙 안내

재일대한기독교회 니시아라이교회에서 봉사해 주실 목사님을 모시려고합니다. 아래의 사항과 같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 격 : 한국어와 일본어가 가능하신 분
- 서류제출 : 이력서 한통
- 마 감 : 2025년 11월 30일
- 제출처 : nishiarai1952@gmail.com
- 문 의 : 090-2905-9348 (이민례 권사)

韓日对照聖書販売



各ページの左に韓国語(改革改正訳)、右に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 A5版変型・1760ページ、革製
- 価格 : 4,000円(消費税・送料込)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창립100주년 기념예배 기념식과 더불어 개최

2025년 9월 28일 오사카북부교회에서 교회창립 100주년 기념예배 및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기념예배에서는 본 교회의 초대 담임목사인 김태복 목사의 차남 김기환목사(미국 거주)로부터 [...]선교 2세기를 향하여 더욱 전진하는 교회]란 제목으로 설교가 있었다. 그 가운데 초대목사가 귀국 후, 평양신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후에 북조선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순교당했다는 말씀이 있었을 때는 성도들이 눈물과 함께 깊은 감동을 받았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기념식에서 1부예배는 조영철 담임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었고 동교회 명예 장로인 김석수 장로의 기도, 성가대에 의한 [주님께서 세운 교회]란 특별찬양이 있었다. 그 후에 한국 실로암 안과 병원의 원장인 김선태목사가 [주 안에서 3망(三望)이 있는 오사카 북부교회]란 제목으로 설교가 있었다.

2부는 축사의 시간으로서 총회대표로서 총회장 양영우 목사(무코가와 교회)와 초대 김태복 담임목사의 차남 김기환목사, 일본기독교단 성봉교회의 목사이며 관서학원대학의 명예교수인 칸다켄지교수, 한신회 대표로서 김근배 장로가 각각 축사를 하였고,



한국 기동교회의 담임목사인 고신일 감독으로부터 영상에 의한 축사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오사카북부교회의 100주년을 기념으로 조영철목사가 관서지방회 미자립 교회를 위한 지원현금을 관서지방회 회장 김종권 목사에게 증정했다. 그 후에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본 교회에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 온 16명(50년 이상 본 교회 출석자)에 대한 표창식을 행했고, 조영철 목사로부터 한 사람씩 전달받았다.

3부에서는 모대성 장로와 김형곤 집사의 사회로 축하식사회가 있었다. 지금까지 100년동안 오사카 북부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선교 2세기에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린다. (보고 : 조영철 목사)

『감사절 페스티벌』 개최 청년부·여성부·장년부 공동주최로

지난 10월 19일(주) 오후 3시부터 大坂北部교회에서 청년부·여성부·장년부 공동 주최로 제14회 감사절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올해는 「주님과의 만남과 연결」이라는 주제로 12개 교회에서 105명이 모여 기쁨을 나누었다.

제1부 예배에서는 청년부장 양양일장로의 사회로, 大坂교회 이명



신목사가 「주의 은혜를 기뻐하는 감사」(사도행전 2장 42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제2부 페널 토의에서는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라는 주제로 5명의 페널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여성부장 김인희권사의 사회로, 京都교회의 이성준목사, 平野교회 청년회장 팜고통씨, 大坂西成교회 청년회장 加瀬太志씨, 京都교회 청년회 김효건씨, 그리고 청년 OB인 浪速교회의 김선영집사가 각각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의 사역과 “청년이 교회에 모이기 위해서는”이라는 주제에 대해 나누어 주었다.

제3부 공연에서는 장년부장 森克之장로의 사회로, 大坂교회의 新井深絵집사의 가스펠 콘서트가 열렸다. 힘 있고 따뜻한 용기를 주는 훌륭한 목소리로 여섯 곡을 선보였으며, 마지막에는 참석자 전원이 일어나 「Oh! Happy Day」를 함께 찬양하고 이어서 「예수 사랑 하심은」을 찬양하였다.

제4부에서는 관서여성회 회장 유수미권사의 사회로 교제의 시간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에 기재된 번호의 테이블에 모여 자기소개부터 오늘의 소감까지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다.

제4부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한 특별한 감사절 페스티벌이 되었다. 앞으로도 청년부, 여성부, 장년부가 협력하여 청년이 모이는 감사의 축제를 계속 기획해 나갈 것이다. (보고 : 장년부장 森克之)

도서 소개

『ある在日韓国人クリスチヤン家庭の百年 —オ사카・林(林) 家族の생활사—』 저자 : 이시카와 료타

이 책은 재일한국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이어온 임(林) 가족의 100년의 삶과 믿음의 역사를 따라간 생활사이자 신앙의 기록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전후,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긴 세월을, 구술 증언과 가족 자료를 통해 정성껏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어머니 이순겸(李順謙)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1909년 조선 북부에서 태어나 평양의 기독교계 여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여성이 교육받는 것조차 드물던 시대에, 그녀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유”를 깨닫고 신앙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본에서 믿음을 얻은 임학주(林學周) 씨와 결혼하기 위해 오사카로 건너와,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기도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전쟁과 교회 탄압의 시대, 공습의 밤에도 이순겸 여사는 가족을 품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 기도는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져, 신앙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南方교회(현 오사카북부교회)에서 예배와 교제를 지키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자녀들은 일본 사회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재일〉과 〈크리스천〉이라는 두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어머니는 누구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길을 인도하신다” 라며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그 침묵의 기도야말로 100년 동안 가족을 이어준 보이지 않는 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자 이시카와 료타 씨는 가족의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기억〉과 〈기록〉의 사이를 차분히 탐색합니다. 그 속에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기도와 눈물, 용서와 믿음의 흔적이 배어 있습니다.

『ある在日韓国人クリスチヤン家庭の百年』은 민족과 국경을 넘어, “믿음이란 무엇인가”, “계승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조용한 증언의 책입니다. 오사카라는 도시의 한켠에서 100년의 세월을 걸어온 한 가족의 기도와 믿음의 발자취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 줍니다.

(오사카교회 이명신목사)

